

1월25일(월)/사도행전7:37~43

**제목: 고발을 잘 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같은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였다(39~43절).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원망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불순종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신18:15)라고 예언했던 예수를 거절하고 죽였던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37절).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모세를 존중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모세가 예언한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지금은 스데반을 율법을 거스리는 자로 고발하였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서술하고 난 뒤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다. 스데반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당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우리도 터무니없이 남을 고발하면 도리어 우리에게 그 고발이 돌아올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고발하는 것도 잘 해야 한다.

1월26일(화)/사도행전7:44~50

**제목: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 광야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짓게 했다(44~45) 따라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중심이었는데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고정된 성전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에 스데반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원치 않으시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49절). 그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전숭배의식을 꼬집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스데반은 개혁자였다. 그는 바른 전통과 교훈은 지키고 보수해야 하지만 잘못된 전통과 교훈은 과감한 개혁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항상 작은 개혁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잘못된 구습과 낡은 사상을 항상 개혁자를 통해서 개혁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1월27일(수)/사도행전7:51~53

**제목: 특별의식이 문제입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 구속사의 맥락을 설명해 왔으나 이제는 직설적인 설교로 전환하였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51절)라고 시작하며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꾸짖었다. 그는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고 하였다(51절).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메시아(의인)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즉,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통박하였다(52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53절). 물론 문자적인 의미의 규례들은 지켰지만 그 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만 사로 잡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심을 보지 못했다. 특권 의식이 문제였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하게 하신 것은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잘라서 특별한 줄 알았다.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여 많은 곳에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오만한 자들은 그 눈도 오만하여 오만하지 못한 자의 의견은 무조건 보지 않으려 한다.

1월28일(목)/사도행전7:54~60

**제목: 살인 앞에 꽃피었던 평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산헤드린은 이를 갈았다(54절). 진리를 위하여 곧 순교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보좌에 일어서 일어나 서셨고 하늘이 열린 사이로 스데반은 그 영광의 예수님을 주목하였다(55~56절). 유대인들은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 달라는 뜻으로 그 앞에 스데반의 옷을 두었다(58절). 그리고 일제히 날아오는 돌을 맞은 그는 설 힘조차 없었을까?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되 저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순교하였다(59~60절).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의 죄 용서를 간구할 수 있을까?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것처럼 평화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죽음 너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무서운 소요가 이상한 평온 속에 끝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는 평화가 있었다. 이처럼 옳은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였다면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치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1월29일(금)/사도행전8:1~3

**제목: 크리스찬은 착해야 합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핍박의 신호탄이 되었다. 1절의 ‘그 날’이란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죽인 날이다. 이 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평신도들은 안전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다(1절). 그러나 평신도 외 사도들은 박해에 굳건히 맞섰다. 평신도들은 안전을 찾아 피난하였으나 사도들은 사도답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에 굳건히 대처하였다. 그리고 사도를 포함한 경건한 사람들은 의롭게 죽은 스테반의 시신을 서술 시퍼런 유대인들에게서 빼내어서 장사하였고 크게 애곡하였다(2~3절). 산헤드린의 판결문에 의하면 형벌을 당해 죽은 사람을 위해 공개적으로 애곡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순교한 스테반에게 마지막 의로운 일을 하였다. 그들은 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착한 일을 하였다.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면에서 착해야 한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해야 한다. 크리스찬은 자기가 설사 중상모략을 받는다 해도 자기의 착한 생활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